

화려한 빛의 축제... ‘코로나 힐링’

지루한 장마에 이은 늦더위로 후더분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다. 날씨만 조금 더 선선해지면 가볍게 국내 여행이나 인근 나들이를 가려 했던 이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이다. 최근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4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전국 야간관광 100선’ 중에 한가롭고 독특한 풍광을 보여주는 곳 5곳을 골라 추천했다. 지금으로서 그저 마음에만 담아두는 밤여행의 ‘버킷리스트’지만, 상황이 전처럼 안정되면 쌓였던 코로나블루(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력감이나 우울증)를 털어낼 초가을 나들이 명소로 이것들을 소개한다.



10여개 야경 코스, 화랑대 철도공원 국내 별 관찰 성지 반딧불이 천문대 공남지, 정자와 연못의 조화가 절경

●미디어 파사드 장관, 화랑대 철도공원 (서울 노원구)

낮에는 오랜 기차길과 노면전차를 보며 한가로운 도심산책을 즐기는 곳이다. 밤에는 다양한 조명으로 꾸민 비밀의 화원, 불빛터널 등 10여 개 코스로 화려한 야경을 보여준다. 특히 옛 화랑대 역사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는 철도공원의 명물이다. 불빛정원은 일몰 30분 전 접두해 오후 11시까지며, 월요일은 휴무다.

지역 특색이 잘 살아있는 매력적인 밤풍경을 지닌 가을 밤나들이 명소들. 버드나무 가지 늘어진 산책로의 정취와 연못에 비추어진 팔작지붕 정자 포용정의 모습이 멋진 부여 공남지. 다양한 조명으로 폐철길을 10여 가지 코스의 야경 명소로 꾸민 서울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 남도 다도해를 배경으로 광양제철과 광양항의 불빛이 어우러진 야경이 매력적인 전남 광양 구룡산 전망대. (위부터 시계방향)

●광양제철과 광양항 야경, 구룡산 전망대 (전남 광양)

광양 밤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남의 숨은 야간 명소다. 다도해를 배경으로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의 불빛이 어우러진 야경이 매력적이다. 시야를 가리는 큰 건물이 없어 먼 바다까지 한눈

가득히 펼쳐지는 풍경은 도시 야경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일몰과 야경뿐만 아니라 일출로도 유명하다. 날씨가 좋으면 순천과 여수, 남해까지 보인다.

●군대사 여행, 개항장 문화재 야행 (인천광역시)

19세기 말 인천항 개항 후 120여 년 동안 세워진 많은 근대 문화재들이 독특한 거리 풍경을 이룬다. 개화기 건물을 개조한 감각적인 카페나 갤러리도 많다. 9월 11일부터 ‘제5회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행사 대신 소수 대상의 문화재 도보 투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과 사전예약은 필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정이나 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동호인 최대 명소, 반딧불이 천문대 (경북 영양)

국내에서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사진동호인들에게는 전부터 소문난 명소다. 천문대가 위치한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에서는 자연 반딧불이도 관찰할 수 있다. 깊은 산속이어서 불빛이 적어 별보기에 좋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곳이라 초가을에 방문할 때는 일교차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

●물에 비친 매력적인 반영, 공남지 (충남 부여)

낮에는 연못을 가득 메운 연꽃, 밤에는 조명을 받으며 산책로에 길게 드리워진 버드나무 가지의 윤치가 유명하다. 연못에 반영된 전통 팔작지붕의 포용정과 공남지의 조화가 절경으로 꼽힌다. 연못 중앙에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서있는 포용정은 밤에 방문하면 누구나 사진에 담은 포토샷 명소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날씨와 생활

26일(수)

서울	20/80	인천	20/80	수원	20/80
	26 33		26 32		26 33
춘천	20/70	강릉	30/80	청주	30/80
	25 33		25 29		26 32
대전	30/80	전주	20/80	광주	60/90
	26 34		26 32		26 29
대구	60/80	울산	80/80	부산	80/80
	26 33		25 31		27 31
창원	80/80	제주	90/9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6 31		27 32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 해돋이 05:57 해질 19:10 🌙 달뜨기 13:51 달지기 23:55

산 날씨

북한산		25/33	내장산		25/31
설악산		24/28	무등산		25/30
오대산		24/32	주왕산		23/32
속리산		24/30	지리산		25/29
계룡산		25/33	한라산		26/28

바다 날씨

인천수도



26/32

안면도 꽃지



25/31

제부도



26/33

변산반도



25/32

경포대



25/29

거문도



25/28

속초



24/28

해운대



27/31

대천



25/32

제주도



27/32

미세먼지

서울	26	좋음	대전	21	좋음
부산	19	좋음	경기	24	좋음
대구	22	좋음	강원	19	좋음
인천	27	좋음	전북	24	좋음
광주	21	좋음	제주	15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401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은성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경제산업부장 양형모
사건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8월 26일(수) 음력: 7월 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먹구름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파도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파청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비바람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무지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노을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잔급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오늘은 화개살 일이다. 화개는 화개를 만났다. 육체적으로는 활동성이 위축되는 날이나 정신적으로는 활발하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은 모든 일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월살이다.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나 꺾이다. 급전의 응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응피에게 부탁하라. 황제수가 있는 날이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의미한다.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게 실속을 차린다는 뜻도 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라도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오늘은 화개일이다. 화개는 종교요, 외로움요, 예술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맑음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해·번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싸늘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파청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진눈깨비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여우비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천살일이며 말피에게는 식신이다. 천살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청산하라.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월살일이며 양피에게는 비전이다. 재물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날이다. 주변인을 믿지 마라.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잔급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화개일이다. 장성이 화개를 만났으니 외로워지고 말여름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좋은 무리의 날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천살일이다. 천살이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을 의미한다.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취침 시 서남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 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오늘은 월살일이다. 월살이란 모든 일의 침체, 정박, 좌절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